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

■ '2012~13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3)

말로 치는 사실상 본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논술전형 이외에도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구술시험 형태로 시행되는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사교육 유발 실태가 심각함...

▲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시립대/서강대 등이 많은 인원을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수리문제의 상당수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구술면접시험을 금지해야 함...

※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입학전형을 분석한 '대입전형 5회 연속토론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5회에 걸쳐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입니다.

<1차> : 논술 전형의 현황과 대책
<2차> :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비롯한 수시전형의 수능 영향력 현황과 대책
<3차> :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 현황과 대책
<4차> :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의 현황과 대책
<5차> :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학생부 중심 전형의 현황과 대책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논술전형의 난이도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풀이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능우선선발을 비롯하여 학생선발에서 높은 수능성적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 인해 사실상 수시전형에서조차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시험에서의 그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논술전형과 함께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있어 구술면접시험은 사실상 말로 치르는 본고사로 볼 수 있음...**

높은 난이도의 논술고사와 수능우선선발 등에서의 막강한 수능 영향력의 문제와 함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1단계 또는 2단계 전형(대부분은 2단계)에서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시험과 같은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를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런 전형 역시 심각한 사교육 유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을 비롯하여 수학/과학 교과지식을 묻는 각 대학의 구술시험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사실상 말로 치는 본고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실시하는 방식과 출제되는 문제 등이 다르고, 구체적인 방식과 기출문제 등이 잘 공개가 되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정보에 대한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의 구술면접시험 실시 현황>

구분	대학(전형)
영어면접, 영어에세이 등	경희대(특기자), 고려대(국제2-2), 서강대(알바트로스-인문), 시립대(베세토니안), 연세대(UIC/ASP/TAP), 이화여대(국제학부), 중앙대(글로벌리더 유형1, 유형2), 한양대(재능우수자-외국어)
영어, 한자 등 활용 구술시험	서울대(특기자-인문), 시립대(글로벌리더-인문)
수학/과학 구술시험	고려대(과학특별), 서강대(알바트로스-자연), 서울대(특기자-자연), 성균관대(특기자-자연), 시립대(글로벌리더-자연), 연세대(과학인재), 중앙대(과학인재), 한양대(한양우수과학인)

주) 이화여대 글로벌리더 전형과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전형은 구술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함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은 논술고사 또는 지필 본고사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붙지 않았지만, 학생이 미리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푼 다음 채점관(전공 교수) 앞에서 면접 및 구술 과정을 겪는 방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모집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면접 방식을 보면 이런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주요 대학의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면접시험 평가방법 예시>

구분	면접평가방법
서강대 알바트로스 (자연)전형	(1) 면접유형: 심층면접 (2) 면접내용: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 국어지문 문제 (3) 면접방식: 숙독(연습지 제공) → 면접(면접관 2인, 수험생 1인) (4) 면접시간: 20-30분
성균관대 특기자 (자연)전형	(평가형식: 교과형 / 평가시간 : 80분, 의예과는 120분) ▷ 전공예약제(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 수학 + 각 전공교과 ▷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공학계열, 반도체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학: 수학(공통) + 생물/물리/화학 중 수험생이 희망하는 1과목(※ 원서접수 시 선택) ▷ 의예과: 수학(공통) + 생물/물리/화학 중 수험생이 희망하는 1과목(※ 원서접수 시 선택)5
시립대 글로벌리더	바. 심층면접 3) 면접방식: 응시자에게 20분의 면접 준비시간과 20분 내외의 면접 시간이 주어집니다.

	4) 심층면접 및 평가목적 -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계열별 공통 문제를 출제합니다. - 심층면접의 평가목적은 전공적성 및 전공수학능력 등 수능과 학생부로 파악하기 어려운 논리력과 판단력, 창의력 및 응용력, 외국어 활용능력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시립대/서강대 등이 많은 인원을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수리문제의 상당수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시전형에서 구술면접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52.53%)를 비롯하여 연세대(21.21%), 시립대(14.07%), 서강대(13.33%) 등 여러 대학이 상당한 인원의 학생을 교과지식을 묻는 시험 형태의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구술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전형의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총계
적용인원	70	235	156	1,089	191	113	522	243	189	2,808
수시인원	2,852	2,666	1,170	2,073	2,384	803	2,461	2,204	1,975	18,588
비중 (%)	2.45	8.81	13.33	52.53	8.01	14.07	21.21	11.03	9.57	15.11

주) 이화여대 글로벌리더 전형과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전형은 구술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 산출에서 제외함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의 난이도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 합격자 절반 가까이를 과고생이 채우고 있으며,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중학교 시기에 과고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이 학원 재원생의 90% 정도는 과고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학원에서 사용되는 학원교재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문제가 대학교 수학 과정 수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과학고 학생들조차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교 과정의 수학을 미리 연습하고 봐야만 하는 시험이라면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고 해도 시험의 정당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대 특기자 전형 구술면접시험(자연계열) 평가방법>

모집단위		지정과목	선택과목	면접시간	답변준비시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 1과목	과목별 15분 내외	과목별 30분 내외
	물리·천문학부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지학 중 1과목		
	화학부	화학	수학, 물리, 생물, 지학 중 1과목		
	생명과학부	생물	수학, 물리, 화학, 지학 중 1과목		
	지구환경과학부	지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의예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수의예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2009학년도 특기자전형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예시 문항>

[문제 1] 계수가 정수인 다항식을 정수다항식이라 하자. 두 정수다항식 $f(x)$와 $g(x)$가 주어졌을 때, $g(x)=f(x)q(x)$인 정수다항식 $q(x)$가 존재하면 $g(x)$는 $f(x)$로 나누어 진다고 말한다. a는 고정된 정수이다. 양의 정수 k가 주어졌을 때 정수다항식 P_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_k(x)=x^{k-1}+ax^{k-2}+\cdots+a^{k-2}x+a^{k-1}$$

이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1-1. 양의 정수 m, k가 주어졌을 때 다항식 x^m-a^m은 다항식 $x^{mk}-a^{mk}$의 약수임을 보여라.

1-2. 두 정수 m, $n(m<n)$이 주어졌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g(0)\neq 0$인 정수다항식 $g(x)$가 $P_m(x)$와 $P_n(x)$를 나누면 $g(x)$는 $P_{n-m}(x)$를 나눔을 보여라.

1-3. 두 정수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이들을 모두 나누는 1차 이상의 다항식이 없을 때, 이들을 서로소라 한다. $P_6(x)$와 $P_{11}(x)$는 서로소임을 보여라.

1-4. $x^{20}-16$과 $x^{25}+32$를 모두 나누는 최대차수 정수다항식을 구하라.

(분석)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수다항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가 하면, '나누어진다'는 것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의 차수의 다항식 사이의 약수와 배수 사이를 증명하게 하고, 20차 다항식과 25차 다항식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교사 전체에게 풀게 했을 때, 정답률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구술면접시험을 금지해야 함...

물론 11개 모든 대학의 구술면접시험이 고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방식의 대학별 고사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술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정규 수업과 평가가 아닌 방

과 후 수업이나 많은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여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볼 때,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이 본고사 방식의 구술시험 면접을 실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 4.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양신영 연구원(010-3959-7032)